

격려 말씀

지난 6월 초 종단 안팎의 큰 기대 속에서 화쟁위원회가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.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, 그리고 갈등을 불교의 화쟁사상에 입각해 풀어내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우리 종단의 원력을 드디어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.

이 같은 화쟁위원회의 활동은 다른 종교를 포함해 일찍이 우리나라 종교의 역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

**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종교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
대화를 나누고 사회적 실천에 나서야
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우리 종단이
앞장서 화답한 것입니다.**

**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화쟁위원회
활동에 참여해주신 도법스님을 비롯한
여러 스님과 재가 위원님들께 종단을
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두 달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임에도
불구하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펼치신
활동은 종단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**

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4대강과 봉은사 문제를 풀어나기 위해 갈등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먼 걸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. 앞으로 화쟁위원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과 해법을 도출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와 이정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

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<화쟁 사상과 사회갈등 해소>를 주제로 한

**워크숍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
이 워크숍을 통해 우리 종단, 나아가
불교계가 화쟁사상에 대한 불교적,
사회적 의미와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가
되기를 바랍니다. 또한 화쟁사상이
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
위한 담론과 해법으로 확산되었으면
합니다.**

**발제에 참여해주신 조성택, 이도흠
두 교수님과 워크숍에 참석해주신
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
드리며 화쟁사상이 우리 사회의 나아갈**

**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
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요청
드립니다.**

**앞으로 우리 종단은 화쟁위원회의
활동이 반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모든
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
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을
넘어 이 땅에 부처님의 자비사회가
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화합하는데
종단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할 것
입니다.**

**모쪼록 화쟁사상을 공유하고 사회적
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
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**

**불기2554년 8월 17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**